



성명서

2022. 2. 24 (목)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국민의힘은 N사 주가차트나 보기는 했나? 여러 얘기 말고 주식 계좌 전체를 공개하라>

현안대응 TF는 윤석열 후보가 2017년 5월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할 때 배우자 김건희씨가 도이치파이낸셜과 비정상 급등주, 일명 ‘작전주’ 로 의심되는 N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혔다.

해당 주식은 금융당국이 문자피싱 주가조작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던 주식이다. 검찰 최고위직 배우자가 누가보더라도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작전주’ 에 투자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에 이어 또 다른 주가조작 가담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은커녕 ‘손해를 보고 매도했다.’ 며 작전주 투자를 옹호하고 있다. 전형적인 작전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N사의 주가 차트를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대체 김건희 씨가 사는 주식마다 수사대상이 되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 현직에 있을때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

긴말이 필요없다. 지난번처럼 일부 계좌만 추려내 엉터리로 공개하지 말고, 전체 주식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라.

2022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